

국가선거데이터 공동활용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에 관한 질적 탐구*

A Qualitative Study on Librarians' Recognition of the Joint Utilization of National Authority Data

이 성 숙 (Sung-Sook Lee)**

초 록

이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선거공동활용시스템에 참여하여 로컬도서관의 선거데이터를 구축한 경험이 있는 사서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고, 국가선거데이터 공동활용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과 지원 요구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선거공동활용시스템 사업에 참여한 총 10명의 사서를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전화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선거데이터 공동활용의 이점, 어려움, 활용 계획, 선거형 수정 계획, 필요한 지원에 대한 의견을 조사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국가선거데이터 공동활용이 로컬도서관의 선거 업무에 기반을 제공하고, 업무 효율을 가져온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선거데이터 수정, 선별, 신규작성, 지식 부족, 지원 체계 미비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었다. 국가선거데이터 공동활용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선거 관련 교육 및 매뉴얼 제공, 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선거 관련 규칙 마련, 시스템 개발 및 유지를 위한 예산 및 인력 지원, 소통 채널 및 협의체 구축, 시스템과 데이터의 고도화, 참여도서관에 인센티브 부여가 도출되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국가선거데이터 공동활용의 운영을 위한 방법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duct interviews with librarians who have experience in establishing local authority data by participating in the national authority sharing system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nd to understand librarians' recognition and support for the joint utilization of national authority data. For this purpose, a total of 10 librarians who participated in the national authority sharing system project were interviewed by telephone using semi-structured questionnaires. Through this, it was possible to investigate the benefits, difficulties, utilization plans, revision plans of headings, and opinions on necessary support.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participants recognized that the joint utilization of national authority data provides the basis for the authority work of the local library and brings about the efficiency of the authority work, but they recognized the difficulty of modifying, selecting, creating new data, lacking knowledge, and lacking support system. The necessary support for the joint utilization of national authority data was provided with education and manuals related to authority, provision of rules related to authority that fully consider the position of the institution, budget and manpower support for system development and maintenance, establishment of communication channel and council, system and data advancement, and incentive to participating librari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method and direction for the future operation of the joint utilization of national authority data were presented.

키워드: 국가선거데이터, 선거제어, 접근점제어,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선거파일, 선거시스템
National Authority Data, Authority Control, Access Point Control, National Library of Korea,
National Authority File, Authority System

* 본 연구는 충남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nfolee@cnu.ac.kr)

논문접수일자 : 2021년 2월 27일 논문심사일자 : 2021년 3월 1일 게재확정일자 : 2021년 3월 21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2(1): 443-467, 2021.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1.32.1.443>

* Copyright © 2021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도서관 자원의 검색과 집중 기능을 위한 표목과 접근점을 제어하는 선거 업무는 편목부서의 핵심 업무이다. 그러나 국내 로컬도서관들은 예산과 인력, 관련 규칙의 미정비, 선거시스템의 미구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자관의 선거파일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이미화, 2012). 더구나 선거를 구축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일부 대학도서관 등도 자관 중심으로 선거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적용방식에 통일성이 없는 한계를 지닌다.

새로운 목록규칙인 RDA가 개발되어 실제 레코드에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ISNI(International Standard Name Identifier)는 선거데이터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로컬도서관이 단독으로 선거파일을 구축하기에는 인력과 예산의 어려움이 있기에, 여러 도서관이 협력하여 국가선거파일을 구축하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9년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학도서관과 국가선거데이터 공동활용을 통한 선거 공유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선거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학도서관 95개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료관리시스템(TULIP, SOLARS)을 위한 선거 활용 기능을 신규로 개발하였고, 국가선거공동활용시스템을 개발하였다(한국문화정보원, 2019). 연구자가 2020년 8월 국립중앙도서관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대상 기관 95개교 중 18개교가 신청하였고, 18개교에 직접 문의한 결과 보급된 18개교 중 12개교가 선거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선거데이터 공동활용의 목표를 설정하고, 국가선거공동활용시

스템을 배포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KERIS가 협조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의 주도하에 국가선거공동활용시스템이 배포되었지만, 대상도서관의 참여와 관심은 저조한 상황이다. 국가선거데이터 공동활용은 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선거데이터 공동활용의 도입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국가선거데이터 공동활용의 중요성과 필수성이 선행연구에서 논의되었고(도태현, 1991; 최달현, 1997), 국가선거데이터 공동활용의 여러 방안과 모델도 제시되었다(오동근, 2000; 이지원, 김태수, 2005; 윤정옥, 2006; 박선희, 2007; 김미향, 2009; 오삼균 외, 2018). 이미화(2012)는 설문조사를 통해 대학도서관의 선거제어에 대한 현황과 사서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선거제어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선거데이터 구축에 실제 참여한 사서들을 대상으로 국가선거데이터 공동활용의 인식과 의견을 논의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 연구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선거공동활용시스템에 참여하여 로컬도서관의 선거데이터를 구축한 경험이 있는 사서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여, 국가선거데이터 공동활용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과 지원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가선거데이터 공동활용을 위한 운영 방법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탐색적 논의는 향후 국가선거공동활용시스템을 개선하거나, 로컬도서관에서 선거 업무를 계획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로 활용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국내 선거데이터 구축현황과 국가선거데이터 공동활용

KCR 4판(한국도서관협회 목록위원회, 2003)에 의하면, 선거란 저록에 사용된 이름(인명과 단체명, 지명, 표제명)과 주제명 등의 형식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관련 자료를 목록상의 특정 위치에 집중하기 위한 활동이다. 도서관 자원의 검색과 집중을 수행하여 검색의 재현율과 정확률을 높이며, 이용자들이 브라우저를 통한 우연적 발견이 가능하게 하는 선거 업무는 도서관이 수행해야 할 핵심 업무이다.

국내 선거데이터 구축현황은 <표 1>과 같다.

선거데이터를 구축하는 주요 기관은 국립중앙도서관, 일부 대학도서관, 국회도서관, KISTI이다. 기관들은 로컬 중심의 선거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입력 포맷과 선거 대상, 자료유형, 주요 항목, 채택하고 있는 선거형의 표기 형식, 기술하는 하위필드 등 적용방식에 통일성이 없는 한계가 있다.

국내 로컬도서관들은 선거 업무가 어려운 이유로 예산과 인력, 관련 규칙의 미정비, 선거시스템의 미구축, 참고정보원 부족 등을 언급하였다(이미화, 2012). 국가선거데이터 공동활용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국립중앙도서관, 2018a). 표준이 되는 선거데이터 공개로 선거 작성 기관들의 중복투자 방지, 국내 선거데이터 고품질화 가능, 공신력 있는 국가선거데이터 유지나 관리

<표 1> 국내 기관 선거데이터 구축 현황

기관명	입력 포맷	선거 대상	자료유형	주요 항목	구축 건수
A대학도서관*	MARC21	개인명, 단체명, 회의명, 총서표제, 통일표제	도서, 비도서, 학위논문 등	- 선거형 기본정보: 이름, 생몰년 - 추가정보: 저작명, 직업 정보 수록 등	450,000
B대학도서관*	KORMARC	개인명, 단체명, 회의명	단행본, 비도서, 연속간행물 등	- 선거형 기본정보: 이름, 한자, 생몰년 - 추가정보: 저작명, 명칭 변경 내역 등	648,945
C대학도서관*	MARC21	개인명, 단체명, 회의명, 통일표제, 총서표제	단행본	- 선거형 기본정보: 이름, 한자, 생몰년 - 추가정보: 주제 분야, 학력, 경력 등	230,000
D대학도서관*	KORMARC/MARC21	개인명, 단체명, 총서표제, 통일표제, 주제명	MARC으로 작성하는 모든 자료 대상	- 선거형 기본정보: 이름, 한자, 생몰년, 기타 정보 - 추가정보: 저작, 직업 등	170,000
국립중앙도서관**	KORMARC	개인명, 단체명, 통일표제, 주제명	단행본, 연속간행물, 학술기사, 온라인 자료	- 선거형 기본정보: 이름, 한자, 생몰년, 기타 정보 - 추가정보: 활동 분야, 직업, 출생지, 소속, 전기정보, 저작, ISNI 등	1,288,507
국회도서관***	--	인명, 단체명	국회도서관, 대학교, 연구기관, 해외 학술기관의 연구자 정보	<인명> - 기본정보: ISNI(혹은 ORCID, VIAF, SCOPUS, UCI 등), 대표명, 생몰년 - 참고 정보: 국가, 직업, 소속, 주제 분야 등 <단체명> - 기본정보: ISNI(혹은 UCI) 대표명, 설립년, 폐지년 - 참고 정보: 국가, 단체 유형, 단체 연혁, 이전기관 정보 등	777,436
KISTI****	--	인명, 단체명(소속기관)	NDSL에 수록된 국내 논문	- 한글이름, 영문이름, 한자이름, 저자 주요 소속기관 등	473,125

출처: *이미화(2012), **국립중앙도서관(2021), ***국회도서관(2020), ****KISTI(2014)를 참고하여 수정 편집한 것임.

로 디지털 정보자원 환경에서 신뢰할 수 있는 근거 데이터베이스 활용 가능, 국가선거데이터와 표준식별체계 접목으로 창작자와 콘텐츠의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 융합을 통한 신산업 육성이 가능하다. 로컬도서관들은 시간과 노력의 경비가 절감될 수 있으며, 각 도서관이 자체적으로 선거데이터를 구축하지 않아도 품질 높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국립중앙도서관, KERIS, 부산대학교, 고려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총 5개 기관이 참여한 '국가선거 TF'를 운영하였다. TF팀은 대학도서관에서 서지 구축 시 영향력이 큰 종합목록을 기반으로 한 선거데이터 구축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대학도서관 선거·ISNI 협력 TF'를 운영하여, LAS 시스템 연계 관련 시스템을 분석하고 이슈를 논의하였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은 자료관리시스템(TULIP, SOLARS)에 선거 활용 기능을 신규로 개발하였고, 2019년 12월 저자 데이터를 대학도서관들과 공유하기 위하여 국가선거공동활용시스템 사용을 희망하는 대학도서관에 보급하였다(이수연, 2018).

국내에서 선거데이터는 여전히 소수의 대규모 기관을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선거데이터 공동활용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국가선거공동활용시스템을 개발하고 배포한 일은 의미 있는 일이며, 향후 협력형 국가선거파일 구축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2 국외 국가선거데이터 공동활용 사례

이 절에서는 국가선거데이터 공동활용 사례

로 NACO와 VIAF의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2.1 NACO

이름선거협력프로그램인 NACO는 1977년 LC와 GPO(Government Printing Office)가 공동으로 선거작업을 시작함으로써 발족되었고, 1985년 CONSER(Cooperative on-line serials project)의 3개 회원기관이 NACO에 이름선거를 전송하기 시작하였다. 1992년 PCC(Program for Cooperative Cataloging)가 시작되었고, NACO도 1995년 통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PCC의 산하단체인 NACO는 정책위원회와 상임위원회를 두고 주요 방향과 정책, 회원기관 승인 등을 결정하고 있다.

NACO에는 영미권 국가인 미국, 영국, 호주, 중남미 국가 등이 참여하고 있고, 2018년 900여 개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NACO는 참여기관에 최소한의 기여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여 참여를 독려했고, 어느 정도의 회원기관이 모집된 2003년부터는 도서관 규모와 대비하여 대규모도서관은 200건, 소규모도서관은 100건 이상의 선거데이터를 월별 추가하거나 갱신하는 도서관에 참가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NACO에 참여하는 기관은 선거레코드 작성 시 공통적 표준과 지침을 준수하는 것에 동의해야 하고, 워크숍 형태로 진행되는 5일간의 교육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내용은 NACO의 개요, MARC21, FRAD, RDA, LC-PCC PS 등이다(LC, [n.d.]a).

NACO의 선거데이터 구축 건수는 2018년 기준 5,052,577건이다(LC, [n.d.]b). 2015년 이후로 NACO는 인명 식별자로서 ISNI를 추가하여

인명을 식별하고 있다(Scanberg & Jin, 2016). NACO의 이름 선거데이터는 2009년부터 제공하는 LC Linked Data Service의 기반이 되었고, 이름 선거데이터는 BIBFRAME으로 구축되어 제공되고 있다(LC, [n.d.]).

2.2.2 VIAF

가상국제선거파일인 VIAF(Virtual International Authority File)의 개념은 Tillett(2002)에 의해 제시되었고, 1998년 LC와 Deutsche Nationalbibliothek, OCLC의 선거파일 통합 프로젝트로 시작되었다. 2007년 프랑스국가도서관의 참여에 이어, 각국의 국가도서관이 참여하였고, 2017년 기준 37개 국가, 5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2012년 VIAF는 OCLC 서비스로 변경되었다. VIAF의 목적은 선거파일을 연결하고 해당 정보를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목록 작성 비용을 줄이고, 도서관 선거파일의 유용성을 높이는 것이다. VIAF 서비스는 도서관과 도서관 이용자에게 세계 주요 이름선거파일에 대한 편리한 액세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각국의 선거파일을 통합하여 서로 다른 이름을 모아 클러스터화하고 연결하는 방식의 웹 기반 서비스이다. VIAF를 통해, 도서관이나 이용자는 선호하는 언어, 문자, 형식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OCLC, [n.d.]).

이러한 방식의 이점은 기관마다 이형 이름이 링크되는 효과로 목록에서 사용되는 표목의 선거 형식과 참조의 연결구조를 생성함으로써 개별이용자의 국가 및 문화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NACO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은 선거 작성 정보원으로 VIAF를 이용한다.

새로운 선거 개념은 전 세계적으로 단일한 선거형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별로 다양한 선거형을 인정하고 이를 연계하는 것이다(이미화, 2012). VIAF가 구축한 선거데이터는 RDF로 변환되어 링크드 데이터 형식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항목마다 URI를 부여하였다.

국가선거데이터 공동활용의 사례조사 결과, 국내 상황에 참고할만한 시사점은 첫째 조사 대상 기관들은 선거 업무를 도서관의 핵심 업무로 간주하되, 로컬도서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협력형 선거파일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둘째 조사 대상 기관들은 참여기관의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인 협력 정책을 펼친다는 것이다. NACO는 참여기관의 수가 안정될 때까지 참여기관들이 최소한 기여하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협업 환경을 조성하였고, VIAF는 단일 선거형을 마련하는 대신 국가별로 다양한 선거형을 인정하고 이를 연계하였다. 셋째 조사 대상 기관들은 선거데이터의 연결을 중요시하였고, ISNI와 같은 국제표준식별자의 활용을 고려하여 외부데이터와의 연계에 대비한다는 것이다. 넷째 조사 대상 기관들은 개방과 공유라는 흐름을 수용하여 링크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조사 대상 기관들은 선거와 선거의 실제적인 구축 방법에 대한 교육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2.3 국내 국가선거데이터 공동활용에 관한 선행연구

국가선거데이터 공동활용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선거데이터 공동활용의 중요성과 필수성에 대한 선행연구로

도대현(1991)은 자동화목록에서의 전거의 개념과 유형, 필요성, 표목의 표준화에 관해 기술하였다. 최달현(1997)은 전거파일의 구축 대상을 설명하고, 센터와 참가도서관이 공동으로 전거파일을 구축할 것을 강조하였다.

국가선거데이터 공동활용의 방안과 모델에 대한 선행연구로 오동근(2000)은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한국형 전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지원과 김태수(2005)는 기구축된 국가접근점제어레코드를 자관의 서지레코드와 바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윤정옥(2006)은 국가선거파일의 협력 구축을 위한 과제를 검토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박선희(2007)는 전거 구축현황을 조사하고, 통합 전거DB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미향(2009)은 대학도서관 간 전거파일 공유를 위해 전거 클러스터링 도입, 활동 분야에 대한 별도의 서브 필드 추가, 최소 전거데이터 생성을 주장하였다. 오삼균 외(2018)는 국가선거의 공동구축을 위한 필수사항을 조사하고, 전거형을 배제한 VIVO 온톨로지 모델 기반 국가선거 구축모델을 제시하였다.

국가선거데이터 공동활용의 인식에 대한 선행연구로 이미화(2012)는 설문조사를 통해 대학도서관의 전거제어 현황과 사서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는 조사 결과와 국제적인 동향을 바탕으로 전거형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전거제어 방안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첫째 지속해서 국가선거데이터 공동활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둘째 전거와 관련된 전통적인 전거제어 방식과 접근점제어라는 방식이 논의되었고, 현실

을 고려하여 다양한 전거형을 인정하는 방안과 전거형을 배제한 모델이 제시되었다. 셋째 전거데이터 구축에 실제 참여한 사서들을 대상으로 국가선거데이터 공동활용에 대한 인식과 의견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선거공동활용시스템에 참여한 사서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고, 국가선거데이터 공동활용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과 지원 요구를 파악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국가선거데이터 공동활용을 위한 사서들의 인식 고찰과 함께 지원 요구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국가선거공동활용시스템에 참여하여 실제 전거데이터를 구축해 본 경험이 있는 사서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정영미와 강봉숙의 연구(2018)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 분야 선행연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연구는 이 분야의 탐색적 연구의 성격을 지닌다.

우선 면담 참여자 선정은 연구 목적에 부합한 목적적 표집 방법에 따라 선정하였다. 국가선거공동활용시스템에 참여한 12곳에 참여를 요청하였고, 요청 결과 <표 2>와 같이 총 10명이 모집되었다. 전거데이터 구축 경험이 있는 사서를 선정함으로써 집단을 대표할 만한 일반적인 속성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원활한 면담을 위해 연구참여자에게 질문지를 사전에 제공하였다. 면담 문항은 국내외 국가선거데이터 공동활용 관련 연구를 종합 분석하

〈표 2〉 연구참여자의 구성 및 면담 일정

번호	성별	연령대	근무/정리업 무경력(년)	형식	날짜	소요 시간	선거데이터 구축 시작 시기
1	여	30	6/2	전화 면담	2020. 8. 20. 15:30-16:10	40분	2020년 국가선거공동활용시스템 참여로 시작
2	여	50	32/23	전화 면담	2020. 8. 20. 16:30-17:05	35분	2020년 국가선거공동활용시스템 참여로 시작
3	여	30	8/4	전화 면담	2020. 8. 21. 15:30-15:50	20분	2020년 국가선거공동활용시스템 참여로 시작
4	여	30	12/4	전화 면담	2020. 8. 21. 16:00-16:25	25분	2020년 국가선거공동활용시스템 참여로 시작
5	여	30	8/1	전화 면담	2020. 8. 24. 15:00-15:25	25분	2010년부터 시작
6	여	40	15/15	전화 면담	2020. 8. 24. 16:00-16:30	30분	2020년 국가선거공동활용시스템 참여로 시작
7	여	50	30/20년	전화 면담	2020. 8. 25. 16:00-16:40	40분	2013년부터 시작
8	남	30	7/1	전화 면담	2020. 8. 26. 16:00-16:30	30분	2020년 국가선거공동활용시스템 참여로 시작
9	여	40	20/10	전화 면담	2020. 8. 27. 15:00-15:30	30분	2018년부터 시작
10	여	30	8/5	전화 면담	2020. 8. 28. 15:00-15:40	40분	2018년부터 시작

고, 인식 조사에 사용된 면담 혹은 설문 문항들을 비교 분석하여 개발하였다. 면담 문항은 ① 국가선거데이터 공동활용의 이점이 있었는가, ② 국가선거데이터의 양과 질은 어떠한가, ③ 국가선거데이터 공동활용의 어려움이 있었는가, ④ 자관에서 구축한 선거데이터를 활용할 계획은 어떠한가, ⑤ 국가선거데이터 공동활용의 정착과 성공을 위한 제언은 무엇인가이다.

면담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 및 전사되었다. 연구자의 주관성을 배제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사본을 연구참여자에게 이메일로 보내 확인 작업을 수행하여, 연구참여자에 의한 연구 결과의 평가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조사 방법 및 분석과 관련한 글쓰기 과정에서 심층적 기술과 주관적 반성을 통해 연구 진행 과정과 연구자의 주관성에 대해 구체적이고 투명한 서술로 연구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는 개방형 코딩을 적용하여 중요한 주제와 범주를 찾는 형식으로 분석하였다. 즉 개념들을 명명하고 유사한 내용의 개념들을 범주화하는 작업을 하였다.

4. 연구결과

국가선거데이터 공동활용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과 의견을 종합하면 〈표 3〉과 같다.

4.1 이점

4.1.1 선거데이터 구축의 기반 마련

연구참여자들은 국가선거데이터 공동활용에 참여함으로써 선거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로컬도서관의 선거데이터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새롭게 시작하는 단계에서 국가선거활용시스템을 이용해서 저희가 다운받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 자체는 그래도 선거를 시작하는 처지에서 큰 장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4번 연구참여자)

소규모의 도서관에서 선거를 시작할 수조차 없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국가선거시스템이 있으니까 시작을 해볼 수 있고 저희가 도입을 했다는 부분에서 성공적이라고 생각해요. (6번 연구참여자)

〈표 3〉 키워드 추출 과정 요약

상위주제	하위주제
이점	선거데이터 구축의 기반 마련
	시간 단축으로 인한 업무 효율성
어려움	선거데이터를 자관 형식에 맞게 수정해야 하는 어려움
	저품질 선거데이터로 중복 데이터 중 선별해야 하는 어려움
	선거데이터 양 부족으로 다수의 신규 레코드를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
	선거에 대한 지식 부족
	지원 체계 미비
구축한 선거데이터 활용 계획	검색에서 활용
	한 저자의 모든 작품의 집중
	저자 정보(이력, 연구 분야, 직업 등) 디스플레이
로컬도서관 선거형 변경 계획	수정 계획 없음
	수정 계획 있음(외부 지원이 있다면 수정 계획 있음 / 링크 오류가 없다면 수정 계획 있음 / 표준화 적용 시점부터 수정 계획 있음)
필요한 지원	관련 교육 및 매뉴얼 제공
	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선거 관련 규칙 마련
	시스템 개발 및 유지를 위한 예산 및 인력 지원
	소통 채널 창구 및 협의체 구축
	시스템과 데이터 고도화 지원
	참여도서관에 인센티브 부여

4.1.2 시간 단축으로 인한 업무 효율성

연구참여자들은 로컬도서관의 선거데이터 구축 시 국가선거데이터를 활용하면 기본적인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어서 시간 단축으로 인한 업무 효율성이 증대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소급서지에 대한 선거일괄반입 결과 서지와 연결 성공률이 높고, 오류도 적다고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일단 저희가 뭐 개별적으로 선거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사실 너무 인력도 많이 드는 부분이고, 업무량도 진짜 몇 배로 증가하는 거라 저희가 제로 상태에서 처음 시작하기에는 되게 힘든 일인데, 아무래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그래도 기본적인 걸 입력해서 주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래도 좀 시간 활용적인 면에

서 많이 단축된 면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은 좋은 것 같아요. (1번 연구참여자)

저자 선거에 대한 데이터 표준이나 안정성,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성공적이라고 생각해요. (9번 연구참여자)

일단 선거 소급작업 결과 서지랑 연결 성공률이 96% 이상이거든요, 이용하면서 아직 큰 오류가 발생하지 않아서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3번 연구참여자)

4.2 어려움

4.2.1 선거데이터를 자관 형식에 맞게 수정해야 하는 어려움

연구참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어려움은 우

선 선거데이터를 자관 형식에 맞게 수정하는 어려움을 제시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국가선거데이터 공동활용에서 제공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선거데이터 전거형과 로컬도서관 선거형의 차이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고, 표목 이외에도 다른 필드 사용의 차이 때문에 선거데이터를 일일이 수정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전거형이 국중하고 저희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수정해야 할 사항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워요. (2번 연구참여자)

국중 선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받아보니까 이게 저희 자관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하나하나 수정을 해야 하니까, 아무래도 특히 제일 큰 게 37X 태그의 경우에 저희가 사용하기에는 조금 뭐랄까 예를 들어서 374 직업에 교수라고 한다면 국중 같은 경우는 꼭 교수라고만 쓰여 있는 게 아니라 뒤에 한자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길게 좀 많이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자관에 맞게 수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1번 연구참여자)

4.2.2 저품질 선거데이터로 중복 데이터 중 선별의 어려움

연구참여자들은 국가선거 검색 시 검색 결과가 너무 많고, 검색 결과 중에서 연구참여자가 찾는 선거데이터를 선별하기 위해 일일이 레코드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다.

하나의 사람을 검색하면 데이터가 너무 많이 나

오거든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방금 검색한 분은 다 동명이인, 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12건의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구축한 거 보면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구축이 잘 된 게 있고 못된 게 있고, 그래서 일일이 데이터 많은 것 중에 선별해야 하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례차례 둘러보면서 괜찮은 거를 선별하거나 아니면 맘에 안 들면 저희가 따로 생성하는데, 데이터 중복 값이 많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1번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선별 어려움의 배경에는 생몰년이 없는 데이터가 많고, 저작정보의 부족을 그 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동명이인 구분을 위한 정보로 여려 활동 분야, 직업 정보, 소속 정보, 한자를 제시하였고, 동명이인 구분과는 별개로 수상 내역, 등단에 관한 정보, 필명, 연구자 번호를 추가되어야 할 정보로 제시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국가선거의 일부 선거데이터가 외부 기관의 선거데이터를 그대로 내려받아 사용함으로 인한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선거데이터의 동명이인 구분은 결국 연도 생몰년인데 생몰년이 없는 선거데이터도 되게 많아요, 서양인이면 워낙 이름 동일 인물이 많아서 아직은 동명이인의 부분에 대한 데이터 제공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데 이거는 어차피 VIAF에서도 충분히 제공하는 상황은 아니어서... (10번 연구참여자)

동명이인 같은 경우는 사실 이름하고 생몰년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책만 가지고는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는 뭐 대표작이나 소속 정보라도 넣어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6번 연구참여자)

간혹 활동 분야가 좀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럴 때 한쪽 분야만 작성이 돼 있으면 그게 좀 구별하기 어렵고... (3번 연구참여자)

국중에서 작성한 데이터가 아니고 OCLC 같은 곳에서 내려받아 놓은 그런 데이터들이 있더라고요. (4번 연구참여자)

한편 연구참여자들은 국가선거의 선거데이터 중 업데이트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최신성이 떨어지는 선거데이터가 많고, 제공되는 선거데이터 형식의 일관성 부족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였다.

조금 아쉬운 거는 예전에 생성된 선거데이터 같은 경우는 최신 경로 업데이트가 좀 안 돼 있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신 경로 업데이트가 되면 그래도 이력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좀 더 확인하기가 쉬운데, 최근 경로 업데이트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아쉽기는 했어요. (1번 연구참여자)

선거에 대한 국중 내에서도 형식이 좀 정확한 것 같지 않아요. 몇 년도부터 몇 년도 선거에는 372가 어떻게 풀어져 있고 374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방법이 다 달라요... 선거 품질 면에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10번 연구참여자)

4.2.3 선거데이터 양 부족으로 다수의 신규 레코드를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

연구참여자들은 국가선거데이터 활용 시 검색하고자 하는 선거데이터가 없어서 로컬도서관에서 신규로 선거데이터를 작성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어려움으로 지적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국외 인명의 경우 데이터 수가 적고, 특히 러시아, 아랍 등 다른 문화권 인명의 데이터 수가 부족하며, 단체명의 경우 국외 단체명은 물론 국내 단체명조차도 선거데이터가 부족하여 신규 레코드 작성이 빈번하다고 하였다.

괜찮은 데이터들의 편차가 너무 심해서, 정확한 데이터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그렇지 않은 데이터들이 있어서... 사실 저희가 새로 구축하는 때도 많이 있거든요. (5번 연구참여자)

데이터의 양을 좀 더 늘려가는 것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인에 대해서는 그래도 정말 웬만한 데이터가 있어서 구분할 수 있는 정보도 안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국외 인명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충분한 데이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단체명 같은 경우에도 조금 업데이트가 안 돼 있거나, 국내단체 경우도 없는 데이터가 좀 있어서, 전체적인 업데이트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4번 연구참여자)

4.2.4 선거에 대한 지식 부족

연구참여자들은 선거 실무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국가선거데이터 활용 시 제공되는 선거데이터를 로컬도서관에서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지 판단의 어려움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작성하는 입장에서는 자관에서 필요 없는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수정이 돼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떨어져서... (6번 연구 참여자)

중소규모 대학의 경우 선거 미구축으로 인해 선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조차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8번 연구 참여자)

4.2.5 지원 체계 미비

연구참여자들은 국가선거데이터 활용 시 발생하는 특정 문제에 대해 국립중앙도서관과 시스템 개발 업체 양쪽 모두 책임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였다.

지금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아서... 저희가 사용을 하다가 국중에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저희 000 업체에 물어보기도 하고, 시스템의 미비한 점이나 이런 걸 물어보면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안정되는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 서로 협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아직 정확하게 협의가 안 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어렵긴 해요. (1번 연구 참여자)

4.3 구축한 선거데이터 활용 계획

4.3.1 검색에서 활용

연구참여자들은 선거데이터 활용 계획에 대해 선거데이터가 구축되면 서지레코드를 간단하게 구축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로컬도서관에서 구축한 선거데이터를 자관 홈페이지 자

료 검색에서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일단 저희가 원래는 저자의 이형이나 뭐 발음 이런 걸 다 구축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전거로 들어가니까 굳이 서지레코드마다 이형을 기록하지 않아도 그냥 선거데이터에만 넣어도 검색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검색의 활용이 되는 것 같고요. (1번 연구 참여자)

일단은 좀 어느 정도 구축이 되면 홈페이지에서 선거 검색이 가능하게 하고, 국중에서 하는 방식을 좀 참조해서 홈페이지에서 좀 구현하고, 다양한 방안을 좀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2번 연구 참여자)

4.3.2 한 저자의 모든 작품의 집중

연구참여자들은 구축한 선거데이터를 통해 저자의 모든 작품의 집중이 가능하고, 이용자가 특정 저자가 쓴 모든 작품을 볼 수 있는 서비스에 활용할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저희가 지금 이제 한 저자가 저술한 저작을 다 모아서 보여주는 건 홈페이지에서 좀 표출하고... 동명이인 같은 경우에도 뭐 이 책을 저술한 사람이 어떤 걸 썼는지 클릭하면 그 사람 것만 보이게 해주고 그런 쪽에도 활용할 것 같고요. (1번 연구 참여자)

예산지원에 따른 도서관 홈페이지 업데이트 사업을 진행한다면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선거검색 시스템과 같은 개인명이나 단체명을 통해서 저작을 모음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면 좋겠다고... (8번 연구 참가자)

4.3.3 저자 정보(이력, 연구 분야, 직업 등) 디스플레이

연구참여자들은 이용자에게 저자이력, 연구 분야, 직업 등 저자 정보를 디스플레이 할 때 선거데이터를 활용할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간략하게 그렇게 표기를 할 때 위에 저자의 이력 같은 거 간단하게 좀 표출시켜주고... 직업 정도는 더 표출하지 않을까. 다른 사례를 좀 보고 저희가 좀 많이 참고해서, 최대한 선거에 들어는 에너지가 크니까, 많이 표출하려고... (1번 연구 참여자)

저희가 2018년도부터 선거를 구축하면서 이용자들도 간단하게 해당 저자의 출신이나 연구 분야나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는 정보를 좀 제공해보자... (10번 연구참여자)

4.4 로컬도서관 선거형 변경 계획

4.4.1 수정 계획 없음

연구참여자들은 국가선거데이터 공동활용을 위한 기술지침에서 선거형이 달라진다면 달라진 선거형에 따른 로컬도서관의 선거형 변경 계획에 대해, 국가선거데이터 공동활용에 참여해도 선거형을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제시하였다.

저희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되어 있는 자료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지금 일단 국중 것도 받아서 수정해서 다시 동양서를 그렇게 하는 것처럼, 현재로서는 일단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4번 연구참여자)

4.4.2 수정 계획 있음

연구참여자들은 선거데이터에 대한 국립중앙도서관의 계속 지원과 소급서지에 대한 선거 일괄반입 지원 등 외부의 지원이 있거나 링크 오류가 없다면 선거형을 수정할 계획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기술지침 표준화 시점부터 선거형을 변경할 계획은 있지만, 이전 선거데이터의 즉시 수정은 어렵다고 제시하였다.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일괄적인 수정이 가능하다 그러면 좋죠. 지금 저희가 구축해 놓은 데이터가 하나 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예전 데이터를 일일이 수정을 해야 한다고 하면은 너무 어렵고요, 일괄적으로 저희가 이제 저희 나름대로 로컬에서 작성한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을 만약에 표준화 선거가 되면 그거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선거를 한꺼번에 프로그램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러면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9번 연구참여자)

데이터 전부를 즉시 소급하여 수정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는 아무래도 인력이란지 아니면 어떤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에 따른 비용이 투입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바뀌는 시점에서는 따라가겠지만 이미 생성된 것을 함께 수정하는 작업은 힘들 것입니다. 여력이 된다면 조금씩 하거나 아니면 어떤 계기가 되어서 일괄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하겠지만, 규칙이 바뀐다고 해서 즉시 수정하지는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7번 연구참여자)

4.5 필요한 지원

4.5.1 관련 교육 및 매뉴얼 제공

연구참여자들은 국가선거데이터 공동활용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선거 담당자나 사서를 대상으로 선거의 필요성, 유용성, 활용방안, 최근 동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선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연구참여자들은 국가선거공동활용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매뉴얼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뭔가 저희가 공동활용해서 현재 다운만 받고 있는데, 다운을 받으면서 국중 선거가 중복인 서지도 기타 태그도 많은데 어떤 걸 저희가 써야 하고 어떤 걸 쓰지 말아야 할지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교육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7번 연구참여자)

결국 모두의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 제일 어려운 일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였지만 선거데이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도서관도 많을 거고, 또 여력이 안 되는 도서관들도 있을 거고, 데이터 공동구축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방향 제시를 해주면서, 어떤 설득 작업을 하는 것이 먼저 최우선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4번 연구참여자)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우리 학교도 저희가 선거를 사용하고 있고 이것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국가선거에 참여하게 된 건데, 학교나 대학도서관에 그게 확실히 전달돼야 할 것

같아요. 이 선거를 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이용자들한테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지, 사서가 일을 할 때 어떻게 편한지에 대해서 좀 홍보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서... 아직 다른 대학도서관도 사실 선거라는 게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가서 안 하던 학교에서 하려면 이 점이 좀 있어야 하실 것 같거든요. (10번 연구참여자)

사실 저는 링크드 데이터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도서관에 소장된 것만 보여주는 건 아무래도 한계가 있고... 빨리 시대의 흐름에 맞게 따라가 줘야, 이용자들이 빨리 활용도 하고 좀 이용률이 높아질 것 같은데 도서관 시스템이 좀 많이 뒤쳐졌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1번 연구참여자)

4.5.2 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선거 관련 규칙 마련

연구참여자들은 국가선거데이터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 규칙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선거데이터 규칙에 대한 국립중앙도서관과 KERIS, 로컬도서관의 다른 입장이 정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특히 연구참여자들은 국가선거데이터 공동활용을 위한 규칙 마련 시 기관의 입장을 고려해줄 것을 제시하였다.

제일 큰 건 역시 통일된 규칙이고요, 통일된 규칙이 생기고 나서... (10번 연구참여자)

우선 공통으로 정해진 선거 규칙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국중에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선거

표준 서지가 있으니까 그걸 사용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없던 신규 전거를 하는 학교 같은 경우 이 부분이 그냥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데, 사실 전거는 이제껏 계속 이어왔고 KERIS 측에서도 한 번씩 설명회를 하면 전거에 대한 부분에 약간 언급을 하셨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식별기호 같은 경우에도 KERIS 측에서 처음 안내해줬던 것과 전거통제용 자동화목록 형식에서 안내하는 식별기호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희도 국중과 이름을 읽는 표준 형식이 다르잖아요. 이런 것도 좀 통일이 되고 해야지, 공동활용이라는 목적이 확실해야 하지, 지금으로써는 그냥 저희가 가상전거파일에 검색하던 거를 그냥 저희가 시스템 내에서 한번 검색이 가능해서 좀 편해진 거 말고는 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제일 필요한 건 규칙을 정확히 해줘야 하는 거고... (7번 연구참여자)

전거를 저희가 반입을 받을 때 저희가 국중하고 다르게 수정한 표목부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될지도 좀 고민이 됩니다. 그런 것도 좀 같이 고려해서 작업이 진행됐으면 합니다. (2번 연구참여자)

4.5.3 시스템 개발 및 유지를 위한 예산 및 인력 지원

연구참여자는 각 기관 LAS에 적용하기 쉬운 전거구축시스템 및 전거활용시스템 개발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전거데이터 구축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용자의 활용에 있으므로, 전거데이터 구축시스템뿐만 아니라 전거활용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시스템 그 솔루션 업체들이 이걸 잘 같이 개발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OOO를 통해서 계속 오랜 시간 전거를 한 학교인데 OOO에 새로 도입하면서 저희는 전거 쪽에서는 되게 뒤쳐졌었거든요. 저희가 뭘 요구를 해도 전거를 하는 학교가 몇 개 없어서,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에 전거를 공동 활용하면서 지금 전거 쪽이 조금 이렇게 개발이 돼서 저희가 전거를 활용할 수 있게 됐거든요. (10번 연구참여자)

전거데이터를 구축했는데 지금 그 이용자들의 전거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아직 프로그램이 지금 미비하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거데이터를 구축하는 목적은 이용자한테 활용을 시키기 위한 건데 그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검색 프로그램이 우선은 탑재가 돼야 하잖아요. 그럼 검색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국가기관에서 전거데이터를 그냥 구축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9번 연구참여자)

다음으로 연구참여자들은 국가전거데이터 공동활용 시스템 도입비와 유지보수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전거데이터를 기존 소급서지에 일일이 연결하는 작업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소급서지에 대한 전거일관반입도 지원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제 도서관마다 예산 문제가 있어서 도입기는 지금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데, 1년으로 끝내지 않고, 아니면 KERIS에서 지원하고 RISS에서

하는 상호대차 프로그램들은 한 4-5년째 지금 시스템을 도입할 때 도입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도입 비용 지원을 연장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해당 모듈 도입 시 1년 이후 유지보수비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 모듈을 구매하면 큰 비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한 오십 육십만 원 정도 추가 유지보수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부담이 되는 학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거나 가격 협상에 대해서 일원화 창구를 통해서 그냥 딱 모듈을 추가했을 때는 도입이 얼마, 유지보수비용 얼마라고 정해 놓고 공고하는 식으로 나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선거의 활용, 검색, 열람시스템을 도입할 때도 이런 형태의 추가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8번 연구참여자)

저희가 시스템을 활용하려면 이제 기능 뭐 관리 측면 때문에 저희 LAS 업체에 유지보수비가 일년에 50만 원 정도가 책정됐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지불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제 시스템을 저희가 못 쓴다고 하더라도 기관에서 부담에는 해야 하는 비용들이 있으니까, 좀 부담이 돼서... (5번 연구참여자)

지금 제일 큰일이 저희가 선거데이터를 받는 것도 좋지만, 이게 기존 자료에 링크시켜주는 게 아주 많은 일더라고요. 과거의 자료들을 다 소급해서 링크를 해줘야, 선거시스템이 의미가 있는 건데 이제 링크를 하나하나 다 해주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사실 뭐 좀 유명한 저자 같은 경우는 정말 수백 건의 저작을 남기기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링크가 하나하나 다 걸어주는

게 정말 수일이 걸릴 때도 있을 정도로 너무 오래 걸려서, 업무 효율이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자동으로 링크까지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번 연구참여자)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국가선거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선거데이터 공동활용 사업을 지속해서 운영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저희가 일단 인력이 없다 보니까 선거MARC를 계속 구축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일단 국중에서 구축한 거를 건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예정인데, 이게 또 다른 사업으로 해서 국중에서 계속 구축한 선거를 이차적으로 반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또 하실 예정인지 그런 것들이 계속됐으면... (2번 연구참여자)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국가선거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해서는 선거데이터 구축을 위한 별도의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저희가 소급을 해서 하면 인력이 사실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국중에서 준다고 하면 국가에서 준다고 하면 그분한테 변환에 대한 그런 업무를 좀 맡겨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9번 연구참여자)

4.5.4 소통 채널 및 협의체 마련

연구참여자들은 국가선거데이터 공동활용을 위해서는 소통 채널을 마련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가선거데이터 공동활용을 위한 협의체

를 만들어, 공동의 목표 의식을 가지고 실제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주관기관은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이 적합하며, 그 이유는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이며, 국내 발간자료가 많고, 인력과 경험이 풍부하며, 표준과 교육의 노후화가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이 주관기관이 되더라도 대학도서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병행되어야 하며, KERIS는 대학도서관의 협력을 이끌기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국립중앙도서관은 KERIS와 긴밀하게 협조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뭔가 소통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시스템의 어떤 점이 있거나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뭐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도, 국중에 말씀을 드려야 될지 또 국중에 얘기를 하면 우리가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정확히 말을 못 해주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시스템 업체에서는 그쪽에서 요구해야지 우리에게 직접 얘기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좀 소통 창구가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번 연구참여자)

지역별로 대표도서관을 지정해서 협의체를 마련하는 것도 어떨까 합니다. (8번 연구참여자)

주관기관은 현재와 같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주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목록업무 표준화를 위한 교육 및 지침을 배포하는 국가대표기관으로서 이미 연구한 지식 그리고 구축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일관성 있는 서지 데이터 연계에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 그리고 KERIS가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니 협력 기관으로 동참하여 대학도서관의 관심을 일으키도록 하면 좋을 듯합니다. (4번 연구참여자)

4.5.5 시스템과 데이터 고도화 지원

연구참여자들은 국가선거공동활용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선거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선거데이터와 국가선거공동활용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선거데이터의 시간차가 해소된 선거데이터의 실시간 처리를 강조하였다. 또한 로컬도서관이 선거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뿐만 아니라 양방향으로 선거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저희가 국중 선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 검색되는데 이제 시스템에서 검색하면 검색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여쭙봤더니, 국중에서 KERIS로 데이터를 주면 KERIS에서 다시 저희한테 뿌려줘야 되는데 그 시간차가 되게 많이 걸려서 특히 최신 자료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경우가 매우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복으로 선거데이터를 새로 생성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또 자동으로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빨리 업데이트가 돼야 하지 않을까, 좀 실시간으로 되면 더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1번 연구참여자)

양방향 선거데이터 교환이 가능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국립중앙도서관도 선거에 관해서 부담을 좀 덜 수 있을 것 같고, 로우 데이터의 질도 좀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로 생각해요. (3번 연구참여자)

그나마 좀 편해진 면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막 처음 기대했던 만큼 그런 거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국가전자활용시스템 시작 목적이 연동해서 양쪽 양방향 시스템하고 활용이 확실히 돼서 뭔가 효과가 나온다는 단계였는데... (10번 연구참여자)

또한 국가전자공동활용시스템의 기능 개선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중복데이터 병합과 오류 수정 요청 기능, ISNI 중복 체크 기능, 전자제어 번호만 링크하는 기능, 중복저장 문제가 언급되었다.

정확한 정보가 연결되는 게 가장 중요할 거 같아요. 정확한 정보를 잘 선별해낼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으면 해요. (10번 연구참여자)

국립중앙도서관 제어번호랑 ISNI와 겹치는 게 있는지 체크하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3번 연구참여자)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국가전자데이터의 공동활용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로컬도서관에서 바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전자데이터의 양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목록 작성 시 즉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비율이 아주 소수입니다. 자료의 목록 작성 시 전자 작업이 되지 않은 자료는 다음에 다시 자료를 재검색하여 전자 작업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넘어간 자료는 그냥 물어둡니다. 새로운 자료에 대해 작업을 하기도 바쁘기 때문입니다. 목록 작성 시 즉시 전거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비율이 높았

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7번 연구참여자)

4.5.6 참여도서관에 인센티브 부여

연구참여자들은 국가전자데이터 공동활용의 성공적인 정착과 운영을 위해서는 전자데이터 구축을 의무화할 것과 전자데이터 구축에 참여한 도서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사실 이게 의무화를 하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지금 시범사업으로 3년을 하고 있지만 눈에 띄는 성과가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너무 일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조금 저도 기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고요. (1번 연구참여자)

국중에서 한다고 하기 전에 KERIS를 통해서 하면 좋겠다는 얘기는 그냥 했지만, 저희는 하지 않는 입장이고 또 구축하는 입장에서는 또 다르니까, 사실 이거는 뭐 강요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KERIS 종합목록 처음 시작할 때도 사실 대부분 기관에서 제공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제공하고 시작을 한 거 같아요... 아마 그 종합목록에서 목록과 관련한 평가가 진행되면서 기관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방안 말고는 뭐가 있을까요. (2번 연구참여자)

5. 결론

5.1 요약 및 제언

이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전자공동

활용시스템에 참여하여 로컬도서관의 선거데이터를 구축한 경험이 있는 사서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고, 국가선거데이터 공동활용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과 지원 요구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선거공동활용시스템 사업에 참여한 총 10명의 사서를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한 전화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선거데이터 공동활용의 이점, 어려움, 활용 계획, 선거형 수정 계획, 필요한 지원에 대한 의견을 조사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의 인식과 지원 요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참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국가선거데이터 공동활용의 이점은 로컬도서관의 선거데이터 구축 기반 마련과 시간 단축으로 인한 업무 효율성이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이 인식한 어려움은 선거데이터를 자관 형식에 맞게 수정하는 것, 저품질 선거데이터로 중복 데이터 중 적합한 선거데이터를 선별하는 것, 선거데이터 양 부족으로 다수의 신규 레코드를 작성하는 것, 선거에 대한 지식 부족, 지원 체계 미비이다. 연구참여자들이 언급한 선거데이터의 활용 계획은 검색에서 활용, 한 저자의 모든 작품 집중, 저자 정보(이력, 연구 분야, 직업 등) 디스플레이이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로컬도서관의 표준 선거형 변경 계획에 대해 수정 계획이 없거나, 외부 지원이나 링크 오류가 없다면 수정 계획이 있고, 표준화 시점부터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들은 필요한 지원에 대해 선거 관련 교육 및 매뉴얼 제공, 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선거 관련 규칙 지원, 선거데이터 구축 및 활용 시스템 개발 및 유지를 위한 예산 및 인력 지원,

소통 채널 및 협의체 마련으로 실제적인 협력 방안 모색, 국가선거 공동활용시스템의 기능 개선 및 양질의 대량 선거레코드 확보를 통한 고도화 지원이다. 연구참여자들의 국가선거데이터 공동활용에 대한 인식과 지원 요구의 결과를 토대로 국가선거데이터 공동활용 운영을 위한 방법과 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선거데이터 공동활용의 도입을 성공적인 정착과 운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사서에게 선거데이터의 기초와 효과, 활용방안, 최근 동향까지 아우르는 국가선거데이터 공동활용과 관련된 교육을 제공하고, 홍보함으로 선거 업무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참여자들은 관련 교육이나 사후관리의 부족과 매뉴얼(지침) 제공의 필요성을 지적하였고, 선거데이터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과 선거데이터 구축 업무에 드는 시간에 비해 그 효과가 미비하다고 언급하였으며, 선거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국가선거데이터 공동활용 관련 집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목록 분야의 계속 교육은 서지정보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선거 관련 교육은 부족하다. 예컨대 국립중앙도서관 계속 교육 프로그램 중 목록 분야는 '통합서지용 KORMARC형식'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2020년 신규과목으로 목록심화 과정에서 '최신 목록 동향과 '국내 목록의 전망 논의'를 다루었고, 2021년 사이버 프로그램으로 '서지정보를 활용한 링크드 데이터'가 있었다(국립중앙도서관 [n.d.]). KERIS의 목록 분야 교육 프로그램도 '통합서지용 KORMARC 입력 지침 교육'의 업무교육 중심으로 진행되었다(KERIS [n.d.]).

국가선거데이터 공동활용 교육의 내용은 ① 선거데이터의 기초, ② 선거데이터의 활용, ③ 선거기술규칙과 포맷, ④ 선거시스템, ⑤ 시맨틱웹 환경에서의 선거데이터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선거데이터 기초에는 선거데이터의 정의, 국가선거데이터 공동활용의 목적과 필요성, 구축 시 이점을 포함할 수 있다. 선거데이터 활용에는 선거데이터를 활용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서비스 사례를 포함할 수 있다. 선거기술규칙과 포맷에는 FRAD와 선거기술규칙, KORMARC(선거통제용) 입력 지침교육을 포함할 수 있다. 선거시스템에는 LAS 선거시스템 기본 원리, 서지시스템과 선거시스템의 연계, 선거시스템의 메뉴, 사용법을 포함할 수 있다. 시맨틱웹 환경에서의 선거데이터에는 시맨틱웹, 링크드 데이터의 기초와 활용사례, ISNI와 같은 국제표준식별자를 포함할 수 있다.

선거데이터에 대한 교육 대상은 선거데이터 구축 담당자뿐만 아니라 전산 사서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선거 구축과 활용은 정리부서 외 다른 부서의 이해가 필요하므로 정리부서 외 다른 부서 사서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병행될 수 있다. 교육 강사는 전문 교수진뿐만 아니라 시맨틱 웹 서비스 전문가, 도서관 링크드 데이터 구축 경험이 있는 사서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둘째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선거데이터 공동활용을 위한 국가 수준의 협의체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국가선거데이터 공동활용을 위해 협의체를 마련하되, 주관기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이 되고 KERIS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를 위해 해

당 기관 간 대화와 설득이 필요하고, 선거데이터 구축 건수를 도서관 평가와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국가선거데이터 공동활용시스템 보급 시 개발업체와 도서관 간 소통 채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국가선거데이터 공동활용협의체를 마련하여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실제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째 관리주체를 고려할 수 있다. IFLA와 유네스코가 공동으로 개최한 1977년 국가서지에 관한 국제회의 권고문 제13조(IFLA, [n.d.])에 따르면 “각 국가서지 작성기관은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가명, 개인명 및 단체명, 통일표제에 대하여 선거제어시스템을 유지·관리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국립중앙도서관, 2009). 따라서 국가선거데이터 공동활용 주관기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적합할 것이다. 둘째 국가선거데이터 공동활용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고려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대학도서관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KERIS, 일부 주요 대학도서관, 국회도서관, KISTI가 참여할 수 있다. 셋째 운영위원회와는 별도로 지역별로 지역위원회를 두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지역위원회는 각 지역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또는 별도 선정된 대표도서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협의체 참여기관은 도서관뿐만 아니라 선거데이터 활용에 관심을 가지는 기록관, 박물관, 출판사의 참여도 고려할 수 있다. 국가선거데이터 공동활용을 위해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선거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선거데이터 공동활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관에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KERIS 종합목록 기여도 평가 기준'처럼, 전거데이터 기여도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셋째 국가전거데이터 공동활용협의체는 전거데이터를 이미 구축하고 있는 기관과 이제 시작하는 기관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양질의 대량 전거데이터를 구축하고 확보하는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전거데이터가 없어서 로컬도서관에서 신규작성 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전거데이터의 양적 확충, 특히 영미 인명, 영미 외 다른 문화권의 인명, 단체명으로서의 확대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오래된 전거데이터가 자주 발견되는 점과 전거데이터의 비일관성을 언급하였고, 전거데이터의 최신성, 통일성, 정확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외부 전거데이터를 자관(전거형이나 기타 정보)에 적합하도록 수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전거규칙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향후 국가선거 기술규칙의 전거형식에 따른 로컬도서관의 전거형 변경 계획에 대해 전거형식의 변경이 어렵다고 하거나 소급서지 전거일관반입 지원이나 인력, 예산지원 등 조건부 변경 계획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국가전거데이터 공동활용을 위해 전거형의 표기 형식이 다른 기관을 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양질의 전거데이터를 구축하고 확보하기 위해 ① 전거데이터 구축에 참여하는 여러 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국가선거 기술규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전거

데이터를 작성하는 대상, 자료유형, 전거형의 선정과 표기형식, 기술해야 하는 전거데이터 요소 등이 포함될 것이다. 국가선거 기술규칙은 협의체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로컬도서관에서 전거데이터를 작성할 때 최소한의 업무 부담을 느끼고 짧은 시간에 전거데이터를 구축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전거형과 관련하여 국가별로 다양한 전거형을 인정하고 이를 연계하는 국제적인 흐름을 고려하여, 통일된 전거형의 개념을 유지하기보다는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전거데이터 식별과 향후 외부데이터와의 연계에 대비하기 위하여 ISNI와 같은 국제적인 식별자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VIAF에 국내 10만여 명의 인명 전거를 제공하여 이들에 대한 ISNI 부여 작업을 진행하였다. 2016년부터 국립중앙도서관은 ISNI 등록기관으로 총 742,534건에 ISNI를 부여하였고, ISNI KOREA 컨소시엄을 운영 중이다(국립중앙도서관, 2018b). 국회도서관은 전거데이터의 식별정보로 국회도서관 자관 식별번호와 ISNI를 활용하고 있다(국회도서관, 2020).

② 전거데이터의 포맷 역시 전거데이터의 상호운용성을 향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전거데이터의 가시성과 재사용성, 웹과의 통합성을 높이기 위해 링크드 데이터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 KISTI 모두 전거데이터를 포함한 자관 데이터를 링크드 데이터로 변환하여 서비스한 경험이 있다(이성숙, 2020). 이러한 경험은 국가선거데이터 공동활용을 위한 링크드 데이터 서비스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각 기관의 링크드 데이터 구축은 자관 중심으로 수행했기 때문에 국

가 수준의 선거데이터 통합 관점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③ 국가선거데이터 공동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 기구축된 선거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앞장 국내 로컬도서관의 선거데이터 구축현황에서 국립중앙도서관, 일부 대학도서관, 국회도서관, KISTI의 선거데이터 구축 건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기구축 선거데이터는 선거데이터 작성 방식에 통일성이 부족하므로, 기관의 선거데이터 간 중복데이터를 식별하고 처리하기 위한 세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④ 선거데이터 품질면에서 선거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통일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 특히 선거데이터에 생몰년과 저작정보가 빠지지 않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생몰년과 저작정보 이외에도 여러 활동 분야, 직업 정보, 소속 정보, 한자가 포함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선거데이터에 추가될 정보로 수상 내역, 등단에 관한 정보, 필명, 연구자 번호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선거데이터에 먼저 ISNI를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가선거데이터 공동활용을 위해 국가 지원하에 실시간 양방향 선거 구축/활용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국가선거데이터 공동활용은 국가 기간사업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로컬도서관이 선거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예산과 인력상의 어려움이 있는데, 국가선거데이터 공동활용시스템의 도입은 로컬도서관의 선거데이터 구축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소급서지에 대한 전거일관반입이 필요하고, 실시간으로 쌍방향 선거데이터 구축이 가능하게 해야

하고, 선거데이터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가선거데이터 공동활용을 위해 기개발된 LAS 외의 시스템에 대한 선거 모듈을 개발하고, 소급서지에 대한 전거일관반입프로그램의 참여도서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2017년 KOLIS II 선거데이터 구축 및 관리기능을 확대 오픈하였다. 또한 2019년 KERIS 종합목록을 통한 대학도서관서지 구축 시, 연결된 국가선거를 동시 다운로드하도록 도서관에서 사용 중인 LAS(퓨처누리 TULIP 3.0, 5.0, 아이네크 SOLARS 8)에 기능을 구현하였고, 소급서지에 선거 연결을 위한 전거일관반입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였다.

또한 전거활용시스템을 개발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선거데이터를 활용한 모범사례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로컬도서관에서 선거데이터를 양방향으로 구축하고,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가선거공동활용시스템 사업을 지속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고, LAS 시스템 개발비와 로컬도서관의 도입비, 유지보수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2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

이 연구는 선거에 대한 사서의 인식 연구가 부족한 가운데 선거 업무 경험이 있는 사서들의 인식과 지원 요구를 조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를 갖는다. 첫째 국가선거공동활용시스템에 참여한 10개 기관 사서의 국가선거데이터 공동활용의 인식

과 지원 요구를 분석한 것으로 모든 사서의 의견이라고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계속되는 후속 연구를 통해 이미 선거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지만,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선거공동활용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 도서관 사서 등 다른 집단의 경험과 인식들이 심도 있게 분석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 분석된 인식과 지원 요구는 국가선거데이터 공동활용의 수요자인 사서

의 경험에 국한된 것이다. 국가선거데이터 공동활용 주관기관, 시스템 개발업체, 출판유통업체, 이용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과 의견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는 국가선거데이터 공동활용에 참여한 사서들의 인식을 기술하고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양적연구가 병행될 때 효과적인 국가선거데이터 공동활용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국립중앙도서관 (2009). 차세대도서관을 위한 이름전거 및 온라인목록(OPAC)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 (2018a). 국가선거서비스. 출처: <https://www.nl.go.kr/authorities/>
- 국립중앙도서관 (2018b). ISNI KOREA. 출처: <https://www.nl.go.kr/isni/main/index>
- 국립중앙도서관 (2021. 2. 22). 국가서지 LOD. 출처: <https://lod.nl.go.kr/home/about/stats.jsp>
- 국립중앙도서관 [n.d.]. 사서교육. 출처: <https://edu.nl.go.kr/>
- 국회도서관 (2020. 12. 31). 학술연구자 정보공유.
출처: <http://www.scholar.go.kr/info/kScholarDb/view.do>
- 김미향 (2009). 대학도서관의 협력형 선거제어 방안 연구. 국립대학도서관보, 27, 41-70.
- 도태현 (1991). 자동화목록에서의 선거통제. 도서관학논집, 18, 217-243.
- 박선희 (2007). 통합 선거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국립대학도서관보, 25, 145-161.
- 오동근 (2000). 한국형 선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1(4), 21-47.
- 오삼균, 한상은, 손태익, 김성훈 (2018). VIVO를 활용한 국가적 선거구축모델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5(3), 165-187. <https://doi.org/10.3743/KOSIM.2018.35.3.165>
- 윤정옥 (2006). 국가 선거파일의 협력 구축을 위한 과제와 방안. 국가선거파일의 협력적 구축방안 자료집, 25-52.
- 이미화 (2012). 대학도서관 선거제어 현황분석을 통한 선거제어 방안 모색.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3), 5-26. <https://doi.org/10.16981/kliss.43.3.201209.5>

- 이성숙 (2020). 국내 도서관 링크드 오픈 데이터 구축과 발행의 개선방안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7(2), 145-169. <https://doi.org/10.3743/KOSIM.2020.37.2.145>
- 이수연 (2018). 데이터 융합·공유·활용을 위한 국가전자협력 사례. 제55회 전국도서관대회 세미나, 협력을 통한 데이터 융합·공유·활용 자료집, 1-39.
- 이지원, 김태수 (2005). SRU 프로토콜을 이용한 접근제어 시스템의 구축과 활용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2(1), 229-248. <https://doi.org/10.3743/KOSIM.2005.22.1.229>
- 정영미, 강봉숙 (2018).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에 대한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의 인식에 관한 질적 탐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2(4), 137-161. <https://doi.org/10.4275/KSLIS.2018.52.4.137>
- 최달현 (1997). 분담목록에서의 전자통제와 전자파일공유. 도서관학논집, 25, 257-293.
- 한국도서관협회 목록위원회 (2003). 한국목록규칙 제4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한국문화정보원. (2019. 12. 12). 도서관에서 구축한 데이터, 대학에서 자유롭게 활용하세요. 출처: <https://www.culture.go.kr/>
- IFLA [n.d.]. 1977-UNESCO/IFLA international congress on national bibliographies. Available: <https://www.ifla.org/node/8091>
- KERIS [n.d.]. 사서커뮤니티 사서누리. 출처: <http://librarian.riss.kr>
- KISTI (2014). NOS. 출처: <https://nos.ndsl.kr/nos/intro/content/author.do>
- LC ([n.d.]a). NACO. Available: <https://www.loc.gov/aba/pcc/naco/about.html>
- LC ([n.d.]b). PCC. Available: <https://www.loc.gov/aba/pcc/stats/SummaryStatisticsAnnual.pdf>
- LC ([n.d.]c). ID.LOC.GOV. Available: <https://id.loc.gov/>
- OCLC [n.d.]. VIAF. Available: <https://www.oclc.org/en/viaf.html>
- Sandberg, J. & Jin, Q. (2016). How should catalogers provide authority control for journal article authors? name identifiers in the linked data world.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54(8), 537-552. <https://doi.org/10.1080/01639374.2016.1238429>
- Tillett, B. B. (2002). A virtual international authority file. Workshop on Authority Control among Chinese, Korean and Japanese Language. March 14-18, 2002, Karuizawa, Tokyo Kyoto. Available: <http://www.nii.ac.jp/publications/CJK-WS/cjk3-08a.pdf>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e, Dal-Hyun (1997). Authority control and authority files in the cooperative cataloging.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5, 257-293.

- Doh, Tae-hyeon (1991). Authority control in a computer prepared or online catalog.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18, 217-243.
- Jung, Young-mi & Kang, Bong-Suk (2018). A qualitative study on the awareness of makerspaces operation among school library professional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2(4), 137-161. <https://doi.org/10.4275/KSLIS.2018.52.4.137>
- KERIS [n.d.]. librarian community librarian nuri. Available: <http://librarian.riss.kr>
- Kim, Mee-hyang (2009). A study on cooperation authority control in university libraries. *Official Gazette of National College & University Libraries*, 27, 41-70.
- KISTI (2014). NOS. Available: <https://nos.ndsl.kr/nos/intro/content/author.do>
- Korea Culture Information Service Agency (2019. 12. 12). The university freely uses the data built by the library. Available: <https://www.culture.go.kr/>
- Korean Library Association. Cataloging Committee (2003). *Korean Cataloging Rules*. Fourth ed.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Lee, Ji-won & Kim, Tae-soo (2005). A study on developing and applying access point control system using SRU protoco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2(1), 229-248. <https://doi.org/10.3743/KOSIM.2005.22.1.229>
- Lee, Mih-wa (2012). A study on direction of authority control by surveying the authority control in university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3), 5-22. <https://doi.org/10.16981/kliss.43.3.201209.5>
- Lee, Sung-Sook (2020).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publishing in library linked open dat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7(2), 145-169. <https://doi.org/10.3743/KOSIM.2020.37.2.145>
- Lee, Su-yun (2018). A case study of national authority cooperation for data convergence, sharing and utilization. The 55th national library conference seminar. Data convergence, sharing, and utilization through cooperation, 1-39.
- National Assembly Library (2020. 12. 31). K-Scholar. Available: <http://www.scholar.go.kr/info/kScholarDb/view.do>
- National Library of Korea (2009). *A Study on the name authority and the next generation library cataloging*.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8a). National authority service. Available: <https://www.nl.go.kr/authorities/>
-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8b). ISNI KOREA. Available: <https://www.nl.go.kr/isni/main/index>

- National Library of Korea (2021. 2. 22.). National Library of Korea LOD. Available:
<https://lod.nl.go.kr/home/about/stats.jsp>
- National Library of Korea [n.d.]. Librarian education. Available: <https://edu.nl.go.kr/>
- Oh, Dong-geun (2000). A study on the development for the korean authorized database system.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1(4), 21-47.
- Oh, Sam-gyun, Han, Sang-eun, Son, Tae-ik, Kim, Seong-hun (2018). Constructing a model for national authority control utilizing VIVO.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5(3), 165-187. <https://doi.org/10.3743/KOSIM.2018.35.3.165>
- Park, Seon-hee (2007). University library authority file construction status: centered on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Official Gazett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ies*, 129, 43-56.
- Yoon, Cheong-ok (2006). Tasks and plans for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on in national authority files. *Cooperative Construction of National Authority files*, 25-52.

